

# 국내 병원도서관 관련 기준 및 현황\*

## Guidelines and Status of Hospital Library in Korea: for Patients and Carers

이 헤 영 (Hey Young Rhee)\*\*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병원도서관 관련 기준 및 현황 파악을 위해 선행연구, 도서관법 그리고 한국도서관기준과 IFLA 가이드라인 비교 및 국내 병원도서관 제공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결과, 선행연구는 국외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도서관법에서도 병원도서관에 관한 법과 기준이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도서관연감을 통해서 병원도서관 통계 및 실태를 파악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한국도서관기준과 IFLA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구성 및 주요 요소에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병원도서관 제공 현황 조사 결과, 조사된 67곳 중 종합병원 49곳(1.3%), 병원 8곳(0.2%), 요양병원 5곳(0.1%), 어린이병원 4곳(0.1%), 군병원 1곳(0.0%) 순으로 병원도서관을 제공하고 있었다. 종합병원 49곳 중 42곳이 상급종합병원인데 이 중 17곳이 병원도서관을 제공하고 있었다. 병원도서관 제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도서관법, 한국도서관기준의 개정이다. 또한 병원도서관 제공의 의무화, 도서관계 잡지를 통한 홍보, 관련 연구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nd analyzed the related study, Library Law, comparison of Korean Library Standards and IFLA guidelines and the status of domestic hospital library provision in order to grasp the regulations and status of domestic hospital library. As a result, the related study is very insufficient compared to overseas, and the Law and Standards for hospital libraries are not clearly and in detail in the Library Law. It is impossible to grasp the statistics and actual condition of the hospital library through the Yearbook of the Korean Library. The Korean Library Standards and IFLA guidelines also show differences in composition and key elements. According to the survey, 49 hospitals (1.3%), 8 hospitals (0.2%), 5 nursing hospitals (0.1%), 4 children's hospitals (0.1%), and 1 military hospital (0.0%) were among the 67 hospitals surveyed. Of the 49 general hospitals, 42 were advanced general hospitals, of which 17 were providing hospital libraries. The most urgent issue for providing hospital libraries is the revision of the Library Law and the Korean Library Standards, and the mandatory provision of hospital libraries, publicity through library magazines, and related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키워드: 병원도서관, 환자도서관, 도서관법, 한국도서관기준, 의료기관

Hospital Library, Patients' Library, Library Law, Korean Library Standards, Medical Institution

\* 동덕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onju@dongduk.ac.kr)

논문접수일자 : 2018년 11월 19일 논문심사일자 : 2018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12월 1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4): 179-202, 201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4.17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적인 변화, 국내 국민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국내에서의 도서관이 변화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수적 증가,<sup>1)</sup> 학교도서관의 수적 증가<sup>2)</sup>와 도서관에서의 장애인, 다문화 가족, 노인 등의 다양한 이용자 대상 그리고 다양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이 도서관의 변화를 알려주는 일련의 사실들이다. 물론 이러한 단순한 사실들만으로 도서관이 변화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 과거보다는 다른 모습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도서관의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취약계층 중에 하나인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이다. 국내에서의 '병원'이라 함은 의술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서관과는 관계가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도서관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와 간호사를 위한 것일 뿐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내 도서관계에서도 「도서관법」[대통령령 제28211호 시행 2017.7.26. 타법개정 2017.7.26.]이나 『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2013)에 병원도서관에 관한 규정과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며 『한국도서관연감』(한국도서관협회 2017)에서는 병원도서관의 수적인 통계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반면 국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해 오고 있

으며 도서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역할을 병원도서관이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Fosson and Husband 1984). 그리고 IFLA에서는 1984년과 2000년에 걸쳐 병원도서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의 상황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이제 병원에서도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병원 모기관에서 도서관을 제공하는 사례, 사회복지재단과 기업에서 병원도서관을 지원·후원하는 사례가 조사되었다. 취약계층을 고려한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일반적인 '작은' 도서관이라는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큰 변화이며 긍정적이다.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 의료진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며 제도적으로는 범로의 의무화, 병원도서관 설립 및 제공을 위한 규정 및 지침 등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국내 병원도서관의 관련 기준 및 현황을 선행연구, 관련 법 및 국내외 기준 그리고 병원도서관 제공 현황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그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국내 병원도서관의 변화와 발전에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병원도서관에 대한 관련 기준 및 현황의 문제점을 선행연구, 관련 법 및

1) 2016년과 2017년 한국도서관연감에 의하면 공공도서관 수는 각각 978개에서 1,010개로 증가하였음.

2) 2016년과 2017년 한국도서관연감에 의하면 학교도서관 수는 각각 11,561개에서 11,625개로 증가하였음.

국내외 기준 그리고 병원도서관 제공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그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 및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관련 법 및 기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함께 한국도서관협회, IFLA 사이트 접근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였다. 국내 관련 법과 국내외 기준 비교는 내용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국내외 기준 비교는 구성 요소와 각각의 주요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병원도서관을 제공하고 있는 병원 유형과 제공방법 즉, 모기관 자체 제공 또는 지원 및 후원에 의한 방법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과 지원 및 후원 기관 사이트, 전화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하였다. 지원 및 후원에 의한 방법을 조사한 이유는 최근 기업이 도서관 기부활동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노영희 2014b)를 통해 병원도서관으로의 관련 후원·지원활동도 함께 조사해보고자 함이다.

셋째, 국내 병원도서관 관련 규정 및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 2. 병원도서관의 정의

‘병원도서관’이라는 용어는 국가마다 다소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생물 의학/보건도서관(biomedical/health sciences library)’을 의미하며 또 일부 국가에서는 환자 대상의 ‘환자도서관’을 의미하면서 독서 자료나 건강정보자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도서관을 가리킨다(IFLA 2000). 본 연구에서의 대상은 후자의 개념으로 이 개념이 정립되게

된 배경을 통하여 그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0세기 초반 40년 동안 병원도서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환자’들을 위한 도서관을 의미하였으며(Loomis 1899; Green and Schwab 1919; Reed 1932; Panella 1996), 때때로 ‘일반 도서관(general library)’ 또는 ‘환자 및 개인을 위한 도서관(library for patients and personnel)’으로 불리기도 했다. 병원에서 환자가 아닌 의사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 있을 경우에는 ‘의학도서관(medical library)’, ‘병원 의학도서관(hospital medical library)’, ‘전문 도서관(professional library)’, 또는 ‘직원병원 도서관(staff hospital library)’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 당시 이러한 용어들은 도서관 협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된 용어가 아니라 사서, 의사, 병원 관리자 등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사용된 용어들이다(Panella 1996).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과거 ‘병원도서관’은 그 명칭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이용자 대상을 자연스럽게 ‘환자’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1943년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제안에 따라 병원도서관 및 서비스 권장 사항을 수립하기 위한 병원도서관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 공동위원회에서 병원도서관이라는 용어에 기존과 달리 환자, 의사, 간호사 대상의 도서관 개념을 모두 포함시키게 되었다. 이어 1944년 특수도서관협회(Special Libraries Association)는 ‘환자 및 의학도서관’만 ‘병원도서관’으로 분류하였고(Hospital and nursing librarians 1945) 10년 후인 1954년 의학도서관협회(Medical Library Association)는 병원도서관 조직을 결성하게 되고 이 조직에서 병원도서관이라는 용어를 ‘환

자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Hospital libraries, Bull Med Libr Assoc 1948).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ALA는 병원 도서관 목표 및 표준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환자'에 초점을 맞춘 환자도서관에 관한 표준을 발표하였으며(Panella 1996) 1984년 IFLA에서는 「병원 환자 및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지침(Guidelines for libraries serving hospital patients and disabled people in the community)」을 발표하면서(IFLA 1984) 이 지침에서 '병원 도서관'이라는 용어를 '환자도서관'을 의미하는데 사용하였다(Panella 1996). 이러한 의미는 IFLA가 2000년에 발표한 「병원 환자 및 장기요양·치료시설의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Guidelines for libraries serving hospital patients and the elderly and disabled in long-term care facilities)」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IFLA 2000). 20세기 초반 40년 동안 병원도서관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자연스러운 인식이 여러 회의와 발표를 통해 공식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병원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관련 자료를 통해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ALA(1970)에서는 모든 연령의 환자들이 그들의 질병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부터 회복·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치료적·교육적·오락적 자료 및 봉사를 제공하는 도서관이라고 하였다. ALA에서 발간한 『문헌정보학용어집』(ALA 1983)에서는 '의료인, 연구원, 행정·교육 직원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병원에서 설립·유지하는 기관'으로 정의하였다. 위에서 기

술한 1943년 ALA에서 제안한 개념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IFLA(1984, 2000)에서는 환자를 위한 도서관을 의미하며, 이들을 위하여 건강정보자료와 함께 독서 자료도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도서관관람』(2009)에서는 "병원에 설치된 도서관을 일반적으로 병원도서관이라 부르지만, 의사나 간호사에게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의학도서관, 입원환자들에게 오락과 일반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병원도서관"이라 구별하고 있다. 『문헌정보학용어사전』(2010)에서는 '병원도서관(hospital library)'과 '환자도서관(patients library)'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두 제시하였다. 병원도서관은 '한 병원에서 그 직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봉사하는 도서관', 환자도서관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한 병원이나 기타 기관이 환자들의 건강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 하였다. 두 가지 용어 모두에 '환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든 무관할 수도 있지만 서비스 대상자가 환자 및 보호자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환자도서관'이라는 용어가 더 명확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도서관법에는 법적으로 '병원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병원(환자)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다항에서는 병원도서관을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 정의하였다.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병원(환자)도서관은 입원 중인 환자와 보호자 등에게 건강

및 질환에 관한 정보·의료, 여가·오락자료 등의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한다.”라는 사명을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병원도서관의 정의를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자 하는 병원도서관의 정의는 ‘병원(의료기관)에 설치된 도서관으로 모든 연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치료·교육·오락을 위하여 건강정보자료와 함께 독서 자료, 여가오락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 3. 병원도서관의 필요성

모든 관중별 도서관이 해당 이용자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그 필요성이 존재하듯이 병원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병원도서관은 이용자 대상부터 다른 도서관 유형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신체 및 정신이 불편한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시에 적서를 그리고 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병원도서관의 필요성은 책과 독서를 치료 보조제로 여겨왔던 중세 후기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MacEachern 1957). 특히 18~19세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코틀랜드, 미국이 정신병원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독서 처방으로 병원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였다(Dunkel 1983). 시대가 변하면서 정신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도서관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안찬수 2012; Calabretta 1996; Fulda and Kwasik 2004; Petersen and Fajardo 2013;

Owusu 2016).

첫째, 환자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의료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함이다. 1980년대 이후 영미권에서는 의료정보서비스(CHIS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최근에서야 관련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홍기선 2005; 노영희 2014a; 남재우, 박태연 2014). 환자들이 의학, 심리학 및 관련 분야의 지식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환자 중심의 치료가 확산됨에 따라 환자들이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다. 병원도서관이 이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공공도서관 또는 의학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 환자 및 보호자 대상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장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재 국내 의학도서관 사서들은 환자 대상의 서비스가 규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환자 대상의 서비스를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안찬수 2012). 의학도서관 사서들은 의사, 간호사 대상의 서비스만으로도 심한 업무에 시달릴 수 있다. 환자를 위해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서가 이들에게 필요한 장서(건강정보, 안정과 치유, 휴식과 오락, 그림책 및 놀이책)와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치유 프로그램, 강연과 문화프로그램, 북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자원봉사자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전문 사서와 함께 수행되어야 하며 역시 필요할 경우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독서지도서비스

또는 독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김지현 2016; 임수경 2018; 김경숙, 송정숙 2013; 최영식 2014)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환자 대상의 독서지도 및 독서치료서비스도 병원도서관에서 집중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는 중세 후기부터 병원도서관의 주된 역할로써 가장 전통적인 병원도서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환자에 초점을 맞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환자들만의 전용 도서관 공간(여가 공간),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 마련, 프로그램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서양에서는 책을 통한 독서치료를 위해 병원도서관이 필요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독서치료 이외에도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이유들로 병원도서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4. 선행연구

병원도서관 선행연구는 국외의 경우,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소수의 연구만이 수행되었다.

국외 선행연구는 그 주제의 다양성과 양적이 수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만 기술하고자 한다. 1800년대 후반 병원도서관의 필요성 언급 연구와 함께 '병원도서관'과 '환자도서관'의 용어 정리, 사례 및 서비스 등의 다양한 연구가 수행(Panella 1996)되었으며 현재도 관련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병원도서관'과 '환자

도서관'의 용어 정리에 대해서는 Loomis(1899), Green and Schwab(1919), Reed(1932), ALA(1970)등과 함께 가장 최근에는 IFLA(1984, 2000)에서도 용어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사례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로는 2개의 병원도서관 조사를 통해 병원도서관의 시설,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 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 연구(Moeller and Deeney 1982)가 있다. 또한 병원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도서관 서비스 연구(Jones 1911), 19세기 초 미국 8개 정신병원에서 실시한 독서지원서비스에 대한 사례 연구(Dunkel 1983), 병원도서관에서 환자 대상의 독서서비스 규정과 위원회 설립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Panella 1996), 환자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 연구(Schneck 1945; Fosson and Husband 1984; Junier 1962), 환자도서관과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에 대한 연구(Guenebaud 1974), 병원도서관에서 환자 대상의 건강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구(Rickards 1978; Roth 1978) 등이 있다. 국외의 경우 병원도서관에서의 환자 대상 봉사 규정도 오래 전에 논의·발행되었다(Going and Clarke 1981; Nielsen 1969). 북미 결핵협회 내에 있는 환자도서관에서의 독서지도 서비스에 대한 연구(Connor 1992)도 있으며 최근에는 노르웨이 환자도서관에 대한 소개(Nyhus 2001), 병원도서관에서의 소아 환자와 그들 가족 대상의 독서치료 서비스(Duncan 2010), 보건학도서관에서 환자 및 일반 이용자 대상의 자료 이용 조사 연구(Hollander 2003), 정신적 질병을 지닌 소아의 부모가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Turner et al. 2011), 임상 사서 서비스가 환자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Brett et al. 2016) 등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국외에서는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로는 장귀녀(1985) 연구를 처음으로 볼 수 있다. 병원도서관에서 환자 대상의 독서요법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사서들이 이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환경(담당자, 업무 부담, 관련 장서 등)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도서관학과에서 독서요법 관련 교과과정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이미경(1986)은 병원도서관에서 환자 대상의 도서관 및 독서서비스 필요성 인식, 장서구성, 예산, 담당자, 독서행위와 치료와의 관계 등을 환자와 의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장서구성, 예산,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는 모두 '부족하다.'로, 도서관 및 독서 서비스 필요성, 독서행위와 치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필요하다. 관계가 있다.'로 조사되었다. 박정미(2012) 역시 병원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환자를 위한 독서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연구하였으며 사서들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병원환자도서관을 위한 사회적 제안을 다룬 도서관정책포럼(2012)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병원도서관의 정의, 도서관법 및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에서의 병원도서관 관련 규정 내용의 문제점, 병원도서관에서의 의료정보서비스, 병원도서관의 나아갈 길 등의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국내에서의 병원도서관 환자 대상 봉사 규정은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한국

도서관협회 2013)에서 '병원(환자)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제시되었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비교해 보면, 우선 국외는 환자도서관에 관한 연구가 오래 전부터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반세기가 지난 86년 후에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다음으로 국외는 환자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다수 수행된 반면, 국내는 독서요법, 독서서비스, 독서지원서비스 등 '독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3건 수행되었다. 병원도서관에서의 환자 봉사 규정 역시 국외와 비교 시 오랜 후에 제시되었다. 국내 연구만을 살펴본다면,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관련 연구가 진행될 즈음,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처럼 활발하지 못했던 시기에 환자를 위한 병원도서관 봉사가 있었다는 점과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5. 병원도서관 도서관법과 기준 및 가이드라인

### 5.1 병원도서관 도서관법

도서관법에 명시되어 있는 병원도서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18312)에서는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를 '특수도서관 이용자'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병원도서관'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도서관법」(전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9호)에서부터는 '병원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공공도서관'에 포함시켰

으며 이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  
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병원도서관'으로 정의 내렸다. 그러  
나 「도서관법」에서는 '병원도서관'이라는 명칭  
사용과 그 정의만 기술되어 있을 뿐 병원도서  
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한국도서관연감』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에 포  
함되는 도서관들<sup>3)</sup> 중 병원도서관을 제외한 나  
머지 도서관들에 대해서는 시설, 자료, 인력 그  
리고 재정 등에 관한 현황과 수치가 통계로 제  
시되어 있는데<sup>4)</sup> 병원도서관에 관해서는 어떠  
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 「도서관법」과 『한  
국도서관연감』 각각에 공공도서관에 분류되는  
공립·사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  
서관에 관한 기준과 통계는 명시되어 있지만  
병원도서관 관련 사항만 없는 것은 그 만큼 도  
서관계에서 병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병원에서의 병원도서관에 대한 인  
식 그리고 기업에서 기부 공헌의 대상으로 병  
원도서관을 지원 하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병원도서  
관에 관한 시설·자료·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관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과 국내 병원도서관  
현황·실태 파악을 통한 통계 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 5.2 병원도서관 기준 및 가이드라인

국내 「도서관법」에는 병원도서관의 시설, 자

료, 인력 및 재정에 관한 어떠한 법적 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도서관기준』에는  
명시는 되어 있다. 국외에서는 IFLA에서 제안  
한 「병원 환자 및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지침  
(1984)」과 「병원 환자 및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2000)」에 그 기준이 명시  
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가장 최근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한국도서관기준』(2013)의 「병원(환  
자)도서관기준」과 IFLA(2000)에서 제안한 「병  
원 환자 및 장기요양·치료시설의 노인, 장애  
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 5.2.1 「병원(환자)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 회 2013) vs. 「병원 환자 및 장기요양· 치료시설의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IFLA 2000)

본 절에서는 전체적인 구성과 직원, 장서, 시  
설기준, 예산, 이용자 서비스 등에 대한 비교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용분석  
법을 적용하여 주요 요소를 비교하였다. 우선  
전체적인 구성은 <표 1>과 같다.

한국도서관협회의 경우 주요 요소는 사명과  
목적을 시작으로 평가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각의 구성 요소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본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및 일반원칙  
으로는 직원배치, 장서구성, 시설, 예산배정, 이  
용자서비스 그리고 평가기준 등이 있다. IFLA  
는 병원도서관을 위한 구성요소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입, 근거, 역사, 위원회, 권고사  
항, 가이드라인의 규정요인, 자원봉사자, 홍보

3) 작은, 장애인, 병영, 교도소, 병원, 어린이도서관.

4) 장애인도서관은 통계가 아닌 설명으로 기술되어 있음.



〈표 1〉 한국도서관협회 vs. IFLA 가이드라인의 전체적인 구성

한국도서관협회		IFLA	
주요 요소	구성 요소	주요 요소	구성 요소
1-2.1 사명과 목적	1-2.1.1 사명 1-2.1.2 목적	서문(Foreword)	병원도서관(hospital library)의 정의
1-2.2 조직 및 인적 자원	1-2.2.1 일반원칙 1-2.2.2 조직 1-2.2.3 인적 자원	서문(Preface)	1. 가이드라인의 근거 2. 예비 연구 2.1 문제 2.2 결과
1-2.3 자료	1-2.3.1 일반원칙 1-2.3.2 자료구성 및 기준	도입(Introduction)	1. 역사적 프레임워크 1.1 병원환자도서관(Libraries for Hospital Patients) 개발 1.2 IFLA와 환자도서관(Libraries for Patients) 1.2.1 IFLA 병원도서관 위원회의 시작 1.2.2 환자도서관에 대한 IFLA의 권고 2. 가이드라인 규정요인 2.1 목적 2.2 목표 2.3 범위 2.4 가설 2.5 용어 정의
1-2.4 시설	1-2.4.1 일반원칙 1-2.4.2 시설기준	환자를 위한 도서관	임무 / 목표 / 권고사항
1-2.5 예산	1-2.5.1 일반원칙 1-2.5.2 배정기준		1. 이용자 1.1 기본 이용자 1.2 계획 2. 조직·기관 2.1 도서관(A Freestanding Library) 2.2 도서관 서비스 3. 시설 3.1 위치 3.2 입구 및 환경 3.3 공간 3.3.1 활용 3.3.2 규모·사이즈 3.3.3 배치 3.4 조명 3.5 가구 및 서가 3.5.1 가구 3.5.2 서가 3.6 장비 4. 직원 4.1 규모 및 유형 4.2 자격 4.3 자원봉사자 4.4 지위 4.5 계속(재)교육과 훈련 5. 예산 6. 장서 7. 프로그램 및 서비스 8. 자동화 9. 홍보 10. 외부자원 11.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권고사항 11.1 노인 11.2 장애인
1-2.6 이용자 서비스	1-2.6.1 일반원칙 1-2.6.2 대출·열람서비스 1-2.6.3 참고·정보서비스 1-2.6.4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서비스		
1-2.7 평가	1-2.7.1 기본원칙 1-2.7.2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병원도서관 중심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고려사항도 제시하였다. 직원의 자격 및 역량과 업무·직책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또한 IFLA에서는 노인, 장애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추가한 반면 한

국도서관협회에는 없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도서관협회는 일반원칙,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IFLA에서는 서문, 도입을 통해 병원도서관의 당위성 등을 제시한 후 환자를 위한 도서관에 필요한 요소들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도서관협회와 IFLA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위에서 제시한 각각의 요소들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다.<sup>5)</sup>

5.2.1.1 직원

한국도서관협회는 직원의 구성 수만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IFLA에서는 구성 수뿐 만 아니라 자격 및 역량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 2>는 직원에 대하여 두 기관에서 제시한 사항이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직원이 최소 3명이며 IFLA는 최소 4명이다. 국내에서는 '사서', '사서보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병원도서관 사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에서는 '병상'을 기준으로 관장의 사서업무 겸직을 제시하였지만 후자에서는 병상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단지 모기관의 규모와 유형, 이용자 수, 장서 수,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직원의 수가 결정됨을 추가로 설명하였다. 또한 후자에서는 전자와 달리 병원도서관 사서의 자격 및 역량을 기술하고 있다. 제시된 자격 및 역량으로는 사서직 및 행정직에 대한 지식, 조직·계획 능력,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감각, 노인 환자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의학적·심리적·정신적 용어에 대한 지식 등이다. 자격 및 역량 제시를 통해 병원도서관 사서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여야만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환자에 대해 사서가 지니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국내외 모두 직원의 계속(재)교육과 훈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IFLA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국내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항은 없지만 IFLA에서는 병원의 자원 봉사 부서 또는 지역 자원 봉사 기관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것을 제시하면서 계속(재)교육과 훈련도 역시 이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임을 밝히고 있다. 직원은 전문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 과정, 다른 병원도서관 방문, 다른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세미나·워크샵 등에 참여함으로써 계속(재)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IFLA에서는 자원봉사자 외에 업무·직책(position)에 대한 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업무·직책(position)에 대해서는 직원 직책에 대한 직무, 정책, 절차 매뉴얼 등을 개발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표 2> 직원

한국도서관협회	IFLA
관장 1명, 사서 1명, 사서보조 1명	전문사서 1명 이상, 준전문사서 1명 이상, 기술직, 사무직
병상 1,000개 미만일 경우 관장이 사서업무 겸직	자격 및 역량 제시
사서직원은 2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로, 사서보조원은 환자 및 도서관 서비스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로 구성	자원봉사자
병원(환자)도서관은 직원에게 지속적인 재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제공	업무·직책(position)
-	계속(재)교육과 훈련(직원, 자원봉사자)

5) 각각의 표에 제시된 사항들은 두 기관과 동일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사항들만을 제시한 것임

5.2.1.2 장서

두 기관의 장서구성 기준은 <표 3>과 같다. 병상을 기준으로 장서구성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두 기관 모두 동일하지만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병상을 1,500 이상까지 제시하고 있으며 IFLA에서는 병상 수는 500개 이상으로 하고 장기치료기관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병상수에 따라 제공되는 도서 권수도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기본장서(권), 연간증가책수(권), 기본장서(종)에 대하여 제시한 반면 IFLA에서는 이러한 제시는 없다. 기타 사항을 보면 IFLA에서는 장애인·어린이·노인에게 적합한 도서 구비, 인쇄건강자료의 유

형, 재배치율, 회전율 그리고 폐기기준에 대한 제시가 기술되어 있다. 장서의 구비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 장서에 대한 폐기기준, 재배치율, 회전율을 제시한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건강정보자료는 사서 단독이 아닌 건강정보 전문가와 검토하여 구비하도록 제시한 점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5.2.1.3 시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최소면적 기준만 제시하고 필요한 공간(자료, 직원, 이용자, 공유공간<sup>6)</sup>)이 필요하다는 점만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조명, 가구, 테이블 규격, 서

<표 3> 장서

한국도서관협회						
병상 수 (서비스 대상)		100~300 미만	300~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1,500 미만	1,500 이상
도서 (병상 당)	기본 장서 (권)	8	7	6	5	5
	연간 증가 책수 (권)	0.5	0.5	0.5	0.5	0.5
연속간행물	기본 장서 (종)	30	30	30	35	6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자료 구비</li> <li>• 비소설 및 보건관련 정보자료는 일정비율을 대체자료로 확보</li> <li>• 독서자료와 보건정보는 인쇄형 및 비인쇄형을 동시에 구비</li> </ul>					
IFLA						
병상 300개 이하	병상 1개당 8권					
병상 300-500개	병상 1개당 7권					
병상 500개 이상	병상 1개당 6권					
장기치료기관	병상 1개당 8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락취미용 정보와 건강정보가 인쇄물, 비인쇄물 형태로 구비</li> <li>• 장애인·어린이·노인 등의 신체·정신에 적합한 도서 구비</li> <li>• 인쇄건강정보자료로 사진, 백과사전, 의학용어집, 도서, 잡지, 각 진료과와 질병 및 예방·치료 관련 도서(건강정보 전문가와 검토하여 구비하는 것이 의무화)</li> <li>• 장서의 20%는 매년 재배치</li> <li>• 도서 회전율 제시</li> <li>• 장서는 3개월 단위로 회전시키며 8년 이상 된 장서는 서가에서 폐기</li> </ul>					

6) 화장실, 커뮤니케이션 공간, 어린이 공간, 휴게실 등.

〈표 4〉 시설

한국도서관협회					
최소면적 기준					
병상 수 (서비스 대상)	100~300 미만	300~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1,500 미만	1,500 이상
면적(㎡)	66	99	132	165	198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공간, 이용자공간, 직원공간, 공유공간 계획</li> <li>• 이용자공간은 소음으로부터 분리되게 별도로 마련</li> <li>• 직원공간 분리</li> <li>• 조명은 자연광, 필요하면 창문에 차단장치 설치</li> <li>• 안전성, 쾌적성,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가구 선택</li> <li>• 테이블 규격은 장애인, 어린이, 성인 등의 인체치수에 부합하여야 하며, 의자는 편안함과 안전성 보장</li> <li>• 서가는 벽면형이 바람직</li> <li>•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각 종 비품(전화기, 복사기, 독서기기, 북카드 등) 구비</li> </ul>				
IFLA					
위치	•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 입구 중앙에 위치(중앙이 아닐 경우 도서관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표지판 제공)				
입구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구에는 문턱이나 계단이 없어야 함</li> <li>• 휠체어와 침대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함</li> <li>• 문은 push-button, 슬라이딩, 자동문 설치</li> <li>• 안락하고 따뜻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식물, 액자, 포스터, 자료 전시</li> </ul>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카드, 독서보조장치, 사무용품 및 기타 품목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마련</li> <li>• 다른 공간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마련</li> <li>• 단기체류병원의 경우 입원 환자의 5%, 10%를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제공</li> <li>• 장기체류병원의 경우 입원 환자의 15%, 20%를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제공</li> <li>• 신체장애자를 위한 공간 마련</li> <li>• 열람실, 스테디룸은 입구에서 멀리 있는 조용한 곳</li> <li>• 멀티미디어실(알코올, 면봉과 같은 소독제 제공), 컴퓨터실, 안내 데스크, 대출대, 장애인 수용 화장실(도서관 공간 내 또는 도서관 입구와 가깝게 위치), 사회적 상호작용실,<sup>7)</sup> 어린이실, 사무실, 탕비실, 라운지 등 마련</li> </ul>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채광</li> <li>• 필요 시 블라인드 설치</li> <li>• 저녁시간에는 인공조명 필요</li> <li>• 서가 통로 사이에 조명 설치</li> </ul>				
가구와 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 보관함</li> <li>• 테이블: 환자의 신장, 활용도, 장애 유형에 맞게 구비</li> <li>• 램프</li> <li>• 의자(도서관 내외부에 마련): 팔걸이 의자</li> <li>• 큰 책을 볼 수 있는 넓은 테이블</li> <li>• 마루: 어린이 열람실은 고무매트, 쿠션 사용 / 소독이 가능한 바닥재와 카펫 사용</li> <li>• 서가: 높이 460cm이상, 최저 20cm이상, 책장 당 5개의 선반 / 조정 가능한 나무 또는 금속 서가 / 신문이나 잡지 이용을 위한 경사진 서가, 점자책이나 대형 및 특수도서를 위한 서가</li> <li>• 컴퓨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위하여 각각 그 높이가 75~80cm, 90cm</li> </ul>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 복사기, 팩스, PC, TV, 하드웨어 등</li> <li>• 북카드는 경량의 대용량 카드, 대용량 카드, 전동식 북카드</li> <li>• 장애인 보조장치</li> </ul>				

가, 각 종 비품의 필요성과 일반적인 안전성, 편안함, 자연광 등만을 제시하는 반면 IFLA에서는 최소면적 기준은 없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국

내와 달리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표 4〉는 두 기관의 시설기준을 제시한 표이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병상 수를 기준으로

7) 공유공간.

최소면적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IFLA에서는 위치, 입구와 환경, 공간, 조명, 가구와 서가, 장비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제시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IFLA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항들도(입구에는 계단이나 턱이 없어야 한다는 등) 가이드라인으로 자세하게 제시해 놓음으로써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병원도서관의 위치, 표지판 제공, 서가 통로 사이 조명 설치 그리고 좌석 제공을 이나 서가 높이도 정확하게 숫자로 제시해 놓고 있다. 환자 이용자들의 편리한 이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이드라인임을 알 수 있다.

#### 5.2.1.4 예산

예산에 대한 기준은 <표 5>와 같다.

도서관 예산은 국내외 모두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이 나타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비율을 제시한 반면 IFLA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간도서구입비에 있어서는 국내의 경우 10~15%로 고정시켜 제시한 반면 IFLA에서는 병상 수를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내보다 다소 융통성 있게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IFLA에서는 장서뿐 만 아니라 시청각 및 보조 장치에 대한 예산도 장서의 수식을 참조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이용자에 대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예산 절약을 위해서는 사서의 능력을 강조한 점, 직원 급여 수준에 대한 언급 등이 국내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표 5> 예산

한국도서관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환자)도서관 중에서 시청각자료나 보조기기가 많이 필요한 도서관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책정할 필요가 있다.</li> <li>• 병원(환자)도서관은 외부자금 확보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민간 기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후원활동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li> <li>• 병원(환자)도서관의 예산은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 운영비로 구성하며, 항목별 예산은 인건비 60%, 자료구입비 20~30%, 기타 운영비 10~20%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 보조기기 구입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적용하지 않는다.</li> <li>• 병원(환자)도서관은 장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체 장서의 10~15%에 상당하는 예산을 신간도서 구입비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 </ul>
IF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에 대한 정의</li> <li>• 예산 조달 방법: 모기관, 기부금, 타기관과의 협력</li> <li>• 도서관 운영 비용은 가능한 한 낮게 책정한다.</li> <li>• 일부 작업은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한다.</li> <li>• 예산 절약을 위한 사서의 능력 강조</li> <li>• 공간·장비 예산은 최소화 한다.</li> <li>• 서비스, 직원, 장서에 필요한 비용은 일정하게 유지한다.</li> <li>• 직원 급여는 공공 또는 기타 도서관에서 유사한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참조한다.</li> <li>• 장서의 시작 비용은 병상 당 필요한 서적 수와 병상 수의 평균 책 비용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예: 연간 10%의 신간 구매율로 3,000권의 도서를 수집하려면 매년 300권의 신간 서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간 예산 = 책의 평균 비용의 300배).</li> <li>• 시청각 및 보조 장치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장서 비용 수식을 참조한다.</li> </ul>

5.2.1.5 이용자 서비스 vs. 프로그램 및 서비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이용자 서비스'로 IFLA에서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로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표 6>은 이에 대한 두 기관의 사항을 제시한 표이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서비스의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했다면 IFLA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IFLA에서는 일반 서비스로 북카드, 전화 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기관의 재활프로그램 서비스도 도서관에서 함께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병원도서관의 전통적인 서비스로 볼 수 있는 독서치료서비스에 대한 제시 역시 국내외가 다르다. 건강의료자료 서비스에 대한 사항은 국내외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지역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 역시 모두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 국내에서는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IFLA에서는 자동화, 홍보, 외부자원,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할 수 있다.

## 6. 병원도서관 제공 현황

본 장에서는 국내 병원도서관 제공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도서관 제공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병원도서관', '환자도서관', '병원환자도서관', '환자를 위한 도서관' 등의 관련어를 중심으로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

<표 6> 이용자 서비스 vs. 프로그램 및 서비스

한국도서관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환자)도서관은 입원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인접한 지역사회에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 <li>• 병원(환자)도서관은 병원 내외의 다른 부서, 국내외의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 서비스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li> <li>• 병원(환자)도서관은 입원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질병, 건강의료, 교양 및 평생학습, 고용과 취업 등의 자료를 최대한 대출하되, 특히 입원 중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대출·열람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li> <li>• 병원(환자)도서관은 방문 이용자를 위한 개인대출 뿐 아니라 병상(병원)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하여야 한다.</li> <li>• 병원(환자)도서관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지도, 독서지도 및 상담, 정보활용교육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li> </ul>
IF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장애인을 위한 북카드 서비스 제공</li> <li>• 전화를 통한 환자의 도서 신청 서비스(그러나 환자가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도록 장려)</li> <li>• 상호대차 서비스</li> <li>• 건강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서비스</li> <li>• 독자자문서비스(readers' advisory, readers' guidance)(교육, 치료 목적)</li> <li>• 모기관 재활프로그램 서비스</li> <li>• 지역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li> <li>• 오락·여가프로그램(독서토론, 미술프로그램, 영화상영, 강연, 음악공연, 시 낭독 등)</li> <li>• 음악치료프로그램 서비스</li> <li>• 독서치료프로그램 서비스</li> </ul>

인터넷 검색 결과 병원 관련 신문이나 병원 홍보 기사, 지원·후원하는 기업 웹문서, 관련 블로그 등을 통해 제공 여부를 조사할 수 있었으며<sup>8)</sup> 여기서 조사된 병원도서관은 다시 전화로 제공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인터넷 정보는 2012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본 조사의 또 다른 목적은 기업이 병원도서관을 후원·지원하는 사례를 알아보고자 함인데 2012년부터 기업이 후원·지원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조사된 병원도서관의 병원(의료기관) 유형을 대한병원협회 사이트를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조사한 이유는 국내에서 병원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는 의료기관 유형을 파악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적합하게 앞으로의 병원도서관에 관한 법이나 기준을 개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병원 모기관에서 도서관을 개관한 경우와 기업 및 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후원 받아 도서관을 개관한 경우를 조사함으로써 그 현황을 살펴본다.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에 앞서 국내 의료기관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병원협회<sup>9)</sup>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군병원으로 구분하였다. 병원 유형 중 종합병원과 병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의료법(시행 2018.9.28. 법률 제15540호) 제3조의2, 제3조의3에 따르면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며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참고로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하면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고,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은 종합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은 곳은 42개이다(보건복지부 2018). 종합병원 중에서도 평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은 만큼 이러한 병원은 의무적으로 병원도서관을 개관하도록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병원도서관의 제공여부 및 인력·서비스·장비 등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재지정 평가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은 병원도서관 제공 현황을 의료기관 유형과 모기관 제공 여부 및 후원·지원 여부를 제시한 표이다.

〈표 7〉 결과는 병원도서관을 제공하는 의료기관 유형 및 그 개수만을 알아보기 위한 1차 조사로 서비스의 내용·질적인 측면은 파악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도서관 제공여부를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도서관 제

8) 인터넷을 통해 기사화 되지 않은 병원도서관도 있을 것임. 본 연구는 병원도서관 현황을 위한 1차 조사로 노출율이 가장 높은 인터넷 검색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였음

9) 대한병원협회. [online]. [cited 2018.10.3].

〈[http://www.hospitalmaps.or.kr/hm/frHospital/hospital\\_list\\_state.jsp?&s\\_mid=020100](http://www.hospitalmaps.or.kr/hm/frHospital/hospital_list_state.jsp?&s_mid=020100)〉.

<표 7> 병원도서관 제공 현황 - 의료기관 유형과 모기관 제공 여부 및 후원·지원 여부<sup>10)</sup>

지역	의료기관 유형	모기관 제공	후원·지원제공	기타
서울권(22)	종합병원(16)	6	10	종합병원 중 2곳은 어린이 병동만 제공
	병원(4)	1	3	
	어린이병원(2)	-	2	
경기권(15)	종합병원(11)	2	9	종합병원 중 1곳은 어린이 병동만 제공
	병원(2)	1	1	
	군병원(1)	1	-	
	요양병원(1)	1	-	
강원권(2)	종합병원(2)	-	2	
충북권(1)	종합병원(1)	1	-	
충남권(4)	종합병원(3)	1	2	
	요양병원(1)	-	1	
전북권(2)	종합병원(1)	1	-	
	병원(1)	-	1	
전남권(5)	종합병원(4)	1	3	
	요양병원(1)	-	1	
경북권(9)	종합병원(7)	4	3	
	어린이병원(2)	1	1	
경남권(6)	종합병원(3)	2	1	종합병원 중 1곳은 어린이 병동만 제공
	병원(1)	1	-	
	요양병원(2)	-	2	
제주(1)	종합병원(1)	1		
총 67	67	25(37.3%)	42(62.7%)	

공기관의 비율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조사이기는 하더라도 병원도서관을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 유형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조사에 대한 의미는 있다고 판단된다.

병원도서관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67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중 모기관에서 도서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25곳(37.3%), 후원·지원을 받아 개관하는 경우는 42곳(62.7%)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이유

로 후원·지원을 받아 도서관을 개관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초기에는 후원·지원을 받고 이용자의 이용 상황이나 추이를 지켜보면서 모기관에서 도서관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기관에서 도서관을 제공하는 경우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그렇지 않은 병원에 비해 높다고 볼 수도 있다. 후원·지원을 하는 기업 및 재단은 교보생명, 현대해상화재보험, 신한카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문화체

10) 표 안의 숫자는 병원 개수임.



육관광부,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재단 등이다. 후원·지원을 받아 개관하는 병원이 42곳(62.7%)이라는 사실을 볼 때, 기업에서도 병원도서관으로의 기부·지원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49곳(73.1%), 종합병원 중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이 42곳인데 이 중 17곳(25.4%)에서 병원도서관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종합병원의 경우 모든 병동을 대상으로 하여 병원도서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49곳 중 45곳(91.8%)이며, 4곳(8.2%)은 어린이 병동에만 병원도서관을 제공하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원 모기관에서 도서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8곳, 후원·지원 받는 경우는 9곳이다. 본 조사결과로 보았을 때 병원도서관을 제공하는 개수가 가장 많은 의료기관 유형은 종합병원임을 알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재정·공간에 여유가 있고 병원의 문화시설 서비스 제공이라는 홍보측면에서 보았을 때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타 의료기관 유형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개관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음 순위로는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병원이 8곳(11.9%), 요양병원 5곳(7.5%), 어린이병원 4곳(6%) 마지막으로 군병원 1곳(1.5%)으로 조사되었다. 요양병원에도 병원도서관이 제공된다는 점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의 개수가 증가하고 요양병원을 찾는 노인층이 증가한다(보건복지부 2018)는 사실을 볼 때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병영도서관도 제공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병원에서의 도서관 제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7. 결론 및 제언

도서관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제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관심 밖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은 병원도서관이다. 국내에서 병원도서관이 존재는 하지만 대부분 종합병원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병원도서관에 관한 인식을 생각해 볼 때 병원도서관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점차 도서관 서비스 대상자 유형 및 계층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병원도서관 관련 법 및 국내외 기준 비교와 국내 현황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병원도서관에 관한 선행연구, 관련 법과 국내외 기준 그리고 병원도서관 제공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도서관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국내 선행연구로는 논문이 3건, 포럼이 1건, 관련 기준이 1건이다.

둘째, 『도서관법』, 『한국도서관기준』 그리고 『한국도서관연감』에서의 병원도서관에 관한 기준 및 내용의 미흡함이다. 『도서관법』에서는 병원도서관에 관한 정의만 기술되어 있으며 『한국도서관연감』에서는 병원도서관의 수치 또한 다루고 있지 않다. 『한국도서관기준』과 IFLA(2000)의 『병원 환자 및 장기요양·치료 시설의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 두 개의 구성 요소와 직원, 장서, 시설, 예산, 이용자 서비스 등의 주요 요소 비교 시 IFLA는 가이드라인의 근거, 역사적 프레임워크 등을 제시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이 견고하다는 점이 가

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요소에 있어서는 직원에 대한 명칭, 자격 및 역량 제시, 자원봉사의 언급, 장서의 기타 사항, 시설, 프로그램 서비스 측면에서는 IFLA가 좀 더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병원도서관은 사서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들에 대한 모집 기준, 역할 등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병원도서관 제공 현황 조사 결과, 의료기관 67곳이 병원도서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제공 비율은 종합병원 49곳(1.3%), 병원 8곳(0.2%), 요양병원 5곳(0.1%), 어린이병원 4곳(0.1%), 군병원 1곳(0.0%) 순으로 나타났다. 제공유형은 후원·지원 제공이 42곳(62.7%), 모기관 제공 25곳(37.3%) 순이다. 종합병원 49곳 중 4곳은 어린이 병동에만 병원도서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병원도서관을 제공하는 종합병원 49곳 중 42곳이 상급종합병원인데 이 중 17곳이 병원도서관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도서관 관련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점이 도출되어야만 이를 기반으로 병원도서관이 변화될 수 있다. 세미나, 포럼 등의 개최도 병원도서관이 변화될 수 있는 한 방법일 것이다.

둘째, 병원도서관 관련 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2012년 제5차 도서관정책 포럼에서 병원도서관 법·기준 내용이 발표된 후 이에 관

한 도서관법과 기준 등의 내용이 달라진 바가 없다. 의료기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혹은 의료기관 유형에 적합한 명확한 법과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계에서도 병원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타 도서관의 정보와 마찬가지로 제공 현황 및 실태·수치를 매년 『한국도서관연감』을 통해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IFLA 가이드라인을 참조함으로써 수치 제공, 비율 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기준·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서관법』을 통해 병원에서의 병원도서관 제공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의무화를 시작으로 점차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병원도서관 제공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재지정 평가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은 도서관계와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해 가능한 일일 것이다.

넷째, 도서관 관련 잡지에서 신설된 도서관이나 행사 등을 홍보하고 기사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원도서관도 홍보를 통해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병원도서관의 관련 법과 국내외 기준 비교, 현황을 위하여 도서관법, 도서관기준, 제공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병원도서관 제공 현황은 후속연구를 위한 1차 연구로 이루어졌다.

## 참 고 문 헌

- 김경숙, 송정숙. 2013.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를 통해 본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349-376.
- 김지현. 2016.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남재우, 박태연. 2014.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건강정보서비스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221-240.
- 노영희. 2014a. 공공도서관과 의학도서관의 건강정보서비스 제공현황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2): 339-360.
- 노영희. 2014b. 도서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기부 사례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109-135.
- 박정미. 2012. 『사서의 독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조사: 병원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독서지도학과.
- 안찬수. 2012. “책 읽는 병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병원환자도서관을 위한 몇 가지 사회적 제안. 『제5차 도서관정책 포럼』. 2012년 2월 15일.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이미경. 1986. 『病院圖書館 奉仕에 관한 研究: 患者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科.
- 임수경. 2018. 『대학도서관의 독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이 도서관 이용 및 도서선택과 관련된 행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장귀녀. 1985. 『도서관 봉사로서의 독서요법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최영식. 2014. 대학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 H대학도서관 중심으로. 『디지털 도서관』, 74: 69-82.
- 한국도서관협회. 2009. 『도서관편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2013.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2017. 『2017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홍기선. 2005.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2): 263-281.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0. *Standards for Library Services in Health Care Institutions*. Chicago: Association of Hospital and Institutional Libraries.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3.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Brettle, A., M. Maden, and C. Payn. 2016. "The Impact of Clinical Librarian Services on Patients and Health Care Organisations." *Health Information and Libraries Journal*, 33(2): 100-120.
- Calabretta, N. 1996. "The Hospital Library as Provider of Consumer Health Information." *Medic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15(3): 13-22.
- Connor, Jennifer J. 1992. "Prescribed Reading: Patients' Libraries in North American Tuberculosis Institutions." *Information & Cultural*, 27(3): 252-279.
- Duncan, M. K. 2010. "Creating Bibliotherapeutic Libraries for Pediatric Patients and Their Families: Potential Contributions of a Cognitive Theory of Traumatic Stres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5(1): 25-27.
- Dunkel, Lisa M. 1983. "Moral and Humane: Patients' Libraries in Early Nineteenth-Century American Mental Hospitals."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71(3): 274-281.
- Fosson, Abe and Elizabeth Husband. 1984. "Bibliotherapy for Hospitalized Children." *Southern Medical Journal*, 77: 342-346.
- Fulda, P. O. and H. Kwasik. 2004. "Consumer Health Information Provided by Library and Hospital Websites in the South Central Region."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92(3): 372-374.
- Going, Monae and Jean M. Clarke. 1981. *Hospital Libraries: and Work with the Disabled in the Community*. London: Library Association.
- Green, E. and S. I. Schwab. 1919. "The Therapeutic Use of a Hospital Library." *Hospital Social Service Quarterly*, 1(3): 147-157.
- Guenebaud, J. 1974. "Relations between Hospital Libraries and Public Libraries."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6(4): 403-405.
- Hollander, S. 2003. "Academic Health Sciences Libraries: An Underutilized Resource for Patients and Consumers." *Journal of Consumer Health on the Internet*, 7(4): 1-6.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00. *Guidelines for Libraries Serving Hospital Patients and the Elderly and Disabled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Hague: IFLA Headquarters(IFLA professional Reports: 61). [online]. [cited 2018,3,5]. <<https://www.ifla.org/publications/ifla-professional-reports-61?og=8708>>.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1984. *Guidelines for Libraries Serving Hospital Patients and Disabled People in the Community*. The Hague: The Federation(IFLA professional reports, no. 2).
- Jones, E. K. 1911. "Libraries for the Patients in Hospitals for the Insane." *American Journal*

- of Insanity*, 68(1): 95-101.
- Junier, Artemisia J. 1962. "Bibliotherapy: Project and Studies with the Mentally III Patient." *Library Trends*, 11: 136-145.
- Loomis, M. L. W. 1899. "Plan for a Hospital Library." *Library Journal*, 24(3): 110.
- MacEachern, M. T. 1957. *Hospital Organization and Management*. Chicago: Physicians' Record Company.
- Moeller, Kathleen A. and Kathleen E. Deeney. 1982. "Documenting the Need for Consumer Health Information: Results of a Community Survey."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70(2): 236-239.
- Nielsen, Helga. 1969. "Hospital Libraries in Denmark." *Scandinavian Public Library Quarterly*, 2(3): 165-174.
- Nyhus, M. 2001. "The Patients' Library at the Norwegian National Hospital in Oslo." *Scandinavian Public Library Quarterly*, 34(4): 18-24.
- Owusu, Erica. 2016. "A Pediatric Hospital Library Outpatient Outreach: Promoting Library Services to Outpatient Visitors and Evaluating Effectiveness." *Journal of Hospital Librarianship*, 16(2): 160-166.
- Panella, Nancy Mary. 1996. "The Patients' Library Movement: An Overview of Early Efforts in the United States to Establish Organized Libraries for Hospital Patients."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84(1): 52-62.
- Petersen, D. and F. J. Fajardo. 2013. "New Horizons: A Partnership Between a New Medical Library and a Specialized Hospital Library, with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Journal of Hospital Librarianship*, 13(4): 344-352.
- Reed, E. W. 1932. "Establishment and Value of the Hospital Library."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34: 674-682.
- Rickards, Doris J. 1978. "Providing Health Care Information to Patients in a Small Hospital."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66(3): 342-344.
- Roth, Britain G. 1978. "Health Information for Patients: The Hospital Library's Role."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66(1): 14-18.
- Schneck, J. M. 1945. "Bibliotherapy and Hospital Activities for Neuropsychiatric Patien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9: 170-174.
- Turner, A., A. Kabashi, H. Guthri, R. Burket, and P. Turner. 2011. "Use and Value of Information Sources by Parents of Child Psychiatric Patients." *Health Information and Libraries Journal*, 28(2): 101-109.

[ 웹 사이트 ]

교보생명. [online]. [cited 2018.5.5].

〈<https://www.kyobo.co.kr/ci/cb/cb/SCICBNLM001P01.form?langMode=ko&menuId=MN0000478&gnbId=MN0000478>〉.

국가법령정보센터. [online]. [cited 2018.10.11].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query=%EB%8F%84%EC%84%9C%EA%B4%80%EB%B2%95%20%EC%8B%9C%ED%96%89%EB%A0%B9#undefined>〉.

대한병원협회 국내 의료기관 현황. [online]. [cited 2018.10.3].

〈[http://www.hospitalmaps.or.kr/hm/frHospital/hospital\\_list\\_state.jsp?s\\_mid=020100](http://www.hospitalmaps.or.kr/hm/frHospital/hospital_list_state.jsp?s_mid=020100)〉.

대한병원협회. [online]. [cited 2018.10.3]. 〈[http://www.hospitalmaps.or.kr/hm/\\_main/main.jsp](http://www.hospitalmaps.or.kr/hm/_main/main.jsp)〉.

보건복지부. [online]. [cited 2018.11.5]. 〈<http://www.mohw.go.kr/react/sch/index.jsp>〉.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재단. [online]. [cited 2018.5.5].

〈<http://www.kidsfuture.or.kr/contribute/main.php>〉.

신한카드. [online]. [cited 2018.5.5].

〈<https://armmin.shinhancard.com/arm/ARMMANN/armMain.shc>〉.

의료법. [online]. [cited 2018.10.3].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query=%EB%8F%84%EC%84%9C%EA%B4%80%EB%B2%95%20%EC%8B%9C%ED%96%89%EB%A0%B9#undefined>〉.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online]. [cited 2018.5.5]. 〈<http://www.bookreader.or.kr/working9.html>〉.

한국도서관협회. [online]. [cited 2018.9.29]. 〈<http://www.kla.kr/jsp/fileboard/lawboard.do>〉.

〈[http://www.kla.kr/jsp/fileboard/almanacboard.do?procType=view&f\\_board\\_seq=54865](http://www.kla.kr/jsp/fileboard/almanacboard.do?procType=view&f_board_seq=54865)〉.

현대해상화재보험. [online]. [cited 2018.5.5]. 〈<https://www.hi.co.kr/bin/CI/CI/CICI8058G.jsp>〉.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n, Chan Su. 2012. "How to Make "A Hospital to Read Books": Some Social Proposals for Hospital Patient Library." *5th Library Policy Forum*. 2012.2.15. Seoul: Library Information Policy Committee.

Chang, Kuee Nyua. 1985. *A Study on the Adoptability of Bibliotherapy as one of the Library*

- Services.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Library Science.
- Choi, Young Sik. 2014. "Reading Therapy Service in University Library." *Digital Library*, 74: 69-82.
- Hong, Ki-Sun. 2005. "A Study for Activation of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2): 263-281.
- Kim, Ji-Hyun. 2016. *A Study of the Management and Effects of the "Reading with Library" Reading Programs: Centered Around the Participating Public Libraries in Seoul*. Ph. D. diss.,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Kim, Kyung-Sook and Jung-Sook Song. 2013. "Ways to Revitalize Bibliotherapy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Based on User Perception and Nee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1): 349-376.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9. *Library Handbook*.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The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2013 Korean Library Standard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7. *2017 Korean Library Yearbook*.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Mi Kyung. 1986. *A Study on the Hospital Library Service: For Patients*.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Dept. of Library Science.
- Lim, Su Kyung. 2018. *The Effects of User's Perception of Readers' Advisory Service Provided by University Libraries on Their Use of Libraries and Activities Related to Book Selection*.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Nam, Jaewoo and Taeyeon Park. 2014. "A Study on Intention of Accepting for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2): 221-240.
- Noh, Younghee. 2014a. "Study Comparing the Provision of Health Information Service by Public and Medica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339-360.
- Noh, Younghee. 2014b. "A Study Analyzing Donation Cases for Establishing Library Corporate Donation Cul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2): 109-135.

Park, Jung Mi, 2012. *A Survey on the Librarian's Degree of Perception about Reader's Advisory Services: Focused on the Hospital Libraries*.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ultural & Arts Kyonggi University, Dept. of Reading Instruction.